

다이쇼방적 - 섬유중류기업과의 협동으로

고부가가치의 ‘꿈’ 발신

다이쇼(大正)방적은 일본내에서 ‘물건만들기’를 지키는 것이 자사의 사명이 라고 하며, 금년에 처음으로 ‘저팬 크리에이션(Japan Creation : JC) 2008’에 출 전(出展)하였다. 그리고 관람자 참가형 부스를 만들어, 그동안 협력해온 섬유 흐름의 중류기업(中流企業)을 중심으로 31개 기업(1개 지역단체 포함)과의 컬 래버레이션(collaboration ; 협동, 공동연구) 결과를 출전하였다.

이번 출전에 다이쇼방적과 컬래버레이션한 기업과 단체는 다음과 같다.

○ 섬유흐름에서의 중류(中流) 기업들

- 텍스타일에서는 쇼와, 다카사와 직물, 다쓰미 직포, 후구다 직물, 야마 자키, 요시카와 직물, 다루이 섬유, 마루내 직물, 스즈키 직상(織商) 등 9개 기 업

- 니트에서는 시무 합섬 메리야스, 마부치 섬유, 모리시다 메리야스, 야 마메, 고바야시 메리야스, 곤도 니트 등 6개 기업

- 타월에서는 우와와키, 와다나베 파일직물, 하트 웰, 곤도 섬유공업, 후 지다카 등 5개 기업

- 염색에서는 나카지마 1개 기업

○ 섬유흐름에서의 하류(下流) 기업들

- 어패럴에서는 지큐 노 이도, 조인트 스트레스, 니시카와 리빙, 신도, 플

레이디 도그, 45rpm 스튜디오, GIM 등 7개 기업

○ 기타분야 기업들

- 수예(手藝)에서는 요코다 1개 기업
- 레이스(lace)에서는 기다야마 진 1개 기업
- 지역(地域)으로 참가한 것은 한난시(阪南市) 상공회 1개 지역 등이다.

이들 기업들은 어느 기업들보다 모두 일본내에서 물건만들기를 계속할 결심(決心)을 품은 기업이다. ‘저팬 테크놀러지를 보여준 <손재주의 정수(精粹)>’를 결집하여 JC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고 다이쇼방적은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했다.

다이쇼방적은 이번 JC에 처음으로 출전하게 된 배경에는, 매년 JC에의 출전기업이 줄고 있어, JC의 존재감(存在感)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 위기감이 있었다. 동시에 다이쇼방적이 이제까지 활동해 올 수 있었던 것은, 협력해 준 어패럴이나, 중류기업 덕분 때문이라는 의식이 강하다. 이들 두 가지 의식이 이어져서 JC의 활성화와 중류기업에의 보답으로서 이번 컬래버레이션 출전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.

전시 부스는 프로모션 존(promotion zone)의 포럼(forum) 전시회장과 이벤트 스페이스의 중간이라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를 100m² 규모로 확보하였다. 그곳에는 먼저 양말편기나 재봉기, 수직기(手織機)를 놓고, 관람자에게 물건 만들기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게 하였다. 그 주변에 제품을 만드는 소재인 다이쇼방적의 실이나 협동으로 출전한 중류기업의 텍스타일을 진열하였다. 또한 그 구석에는 방적 원료인 ‘오대륙(五大陸)에서 특선된 면’, ‘오거닉 코튼(organic cotton)’, ‘수모’, ‘합섬’ 등을 전시하였다. 관람자는 부스안에서 원료로

부터 제품까지 물건 만들기의 모든 공정을 비슷하게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.

그리고 몇몇 협동 출전한 기업은 비즈니스 존에도 따로 출전하고 있다. 그래서 다이쇼방적 부스는 이들 중류기업 출전품을 찾는 인덱스(index ; 색인) 역할도 하고 있다.

그 외에 지역사회에의 공헌으로 ‘한난시 상공회’와 협동으로 ‘한난(阪南)브랜드 코너’를 만들기도 하고, 사탕수수(砂糖黍)나 칩(葛) 등의 지역풍토(地域風土)에 연유된 식물원료섬유를 전시한 ‘일본의 달인(達人)’ 코너를 만들기도 하여, 다이쇼방적 한 회사의 이익을 초월한 전시가 최대의 특징이다.

원시염색연구가(原始染色研究家)에 의한 ‘벵갈라(Bengala : 황토를 구워서 만든 빨간 안료)’ 염색도 실제로 관람자 앞에서 염색해 보여, “학생이나 일반 관람자에게도 공부가 될 것이다.”라고 전시회측에서는 설명하고 있다.

이번의 출전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일본의 중류기업에 관심이 집중되어, 여기에 출전하지 않은 기업도 앞으로 출전을 검토하는 등 그러한 JC가 되고자 하고 있다. 그리고 일본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‘저팬 테크놀로지’의 새바람을 발신(發信)하는 JC가 되도록 하는 것이 다이쇼방적의 꿈이다.♣